



향토수종 소사나무에 대하여

이 옥 주/특지원

1]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종이란 것에 새삼스런 우수성과 가치를 깨닫고 보존하기 위해 또한 번식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개발한다고 한다.

신토불이 라는 낱말은 귀에 익었고 토종닭이니 토종 삼살개니 하며 토종의 우수함을 알리려고 애쓰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오래 전부터 필자는 한국자생 수목에 애정을 갖고 틈틈이 자생종 번식을 하려고 노력하였던 바 일부는 생산하여 보급하기도 하였고 까다로운 수종은 몇차례 실패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검증하는 과정에 있는 나무도 있다.

그 품종은 적지 않으나 우선 기르기 용이하고 수형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원산의 소사나무부터 알아보기로 하였다. 분재로 더욱 알려진 나무이지만 조경수로 가치 있다고 본다.

2] 소사나무는 한국이 원산지이고 참나무목 자작나무과에

속하며 학명은 [Carpinus coreana Nakai]이고 우리나라 중부이남 해안 또는 남해안 섬이나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으며 잎은 2cm~



▲여수 돌산도

5cm의 타원형으로 암수 한그루이며 5월에 개화한다.

뒷면 맥위에 털이 많이 나있고 과수는 길이 2cm~3cm이고 포가 4~6개씩 달리는데 반계란형의 둔

두로써 톱니가 있어서 기부가 열매를 둘러싸고 있다. 깊이 5~6mm의 작은 타원형의 열매가 10월에 익는다.

맹아력이 강하며 내건성, 내조성, 내공해성이 좋아 해안이외에 도심지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며 유사종으로는 왕소사나무와 섬소사나무가 있다.

3] 소사나무의 번식은 용이한 편이라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잎사귀를 부셔낸 후 알맹이만 추출한 뒤 수침하여 비립종자를 건져 버린후 가리얏은 충실한 종자를 선별하여 기건저장한 뒤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발아율은 80%이며 발아기간은 파종후 약 40일에서 50일 가량 소요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발아기간이 다른 종자보다 길기 때문에 입고병 피해가 있으니 발아 초기에 점차적으로 종자위에 덮은 피복물(차광망이나 짚)을 벗겨 주어야 한다. 대체로 성장 속도가 늦기 때문에 부엽토를 살짝 덮어



▲천리포 수목원



▲강 화도 마니산 침성단

주면 습도조절 및 제초발아 억제 효과가 크므로 번식 및 성장율이 훨씬 나아진다.

4 소사나무는 잎사귀가 작아 귀엽고 또한 운택하여 그늘도 적절하며 꾸불꾸불한 줄기가 자연스러우며 잔가지의 배열이 섬세하고 맹아력도 좋으며 가을 단풍이 수려하다. 나이가 들면 나무의 피부가 하얗게 변하여 보는 이의 감동을 자아내며 겨울의 나무가 잔가지의 섬세함으로 아름다운 수종이다. 봄의 싹으로부터 겨울나무에 이르기까지 사계절의 변화를 멋지게 감상할 수 있는 우리의 소사나무는 척박하고 잔 돌이 많은 양지바른 곳에서의 생육이 좋고 추위에도 강한 토종 나무 라고 할 수 있다.

5 그렇다면 분재로만 알려진 소사나무가 조경수로서의 우수성이 있는 것일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분재의 소재로 쓰이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



▲천리포 수목원

면 어떠할까? 소나무, 모과나무, 소사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패죽나무, 산사나무, 당단풍, 향나무, 진백류 등으로 모두 개성이 있고 수형이 아름답기에 사람들 가까이에 두고 싶은 것이리라 위에 열거한 나무들 또한 대개가 조경수로 각광 받는 나무이다. 그러나 소사나무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 필자가 십여년 전 여울 어느날 서해안 어느 일본인이 살던 관사마당에 정원수로 심겨있는 나무의 소사나무를 보았는데 그 어떤 나무보다도

자태가 아름다웠다.

얼굴에 분칠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보다 훌훌 벗어버린 진짜 겨울나무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소사나무의 활용은 각 가정의 정원수로도 좋고 이면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군식도 좋으리라 본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묘목을 번식하여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수종이 되리라 확신하며 조경인의 사랑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 원색한국수목도감